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3년도 제10호

2023.03.14(화) 10시

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김포시민의 힘, 문화연대, 스포츠인권연구소, 체육시민연대 공동성명

김포FC는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다. 서영길 대표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다.

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사건 후속 기사

극단적 선택 김포FC 유소년 선수… "진상규명 서둘러야"

윤태현 연합뉴스기자

유소년 선수 극단적 선택 김포FC, 감독과 코치진 직무 배제

백승우 MBC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일시: 2023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 장소: 김포시청 앞

■ 기자회견 취지

- 2022년 4월 27일 새벽, 김포FC 유소년축구선수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함
- 스포츠윤리센터는 8개월간의 조사 후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에 의해 '징계요구'를 의결함
- 김포FC 김병수 이사장(김포시장)과 서영길 대표는 진상 규명이나 대책 마련 없이 가해 지도자들과 재계약하는 등 2차.3차 가해를 지속함
- 이에 이하 시민사회단체는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자 함

■ 기자회견 순서

▶ 10:00 기자회견 시작(사회: 정용철 문화연대 집행위원, 서강대학교 교수)

-기자회견 취지와 경과보고 : 사회자

-발언 1: 이동연(문화연대 공동대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언 2: 이대택(스포츠인권연구소 대표, 국민대학교 교수)

-발언 3: 김대훈(김포시민의 힘 대표)

-발언 4 : 염규현(전직 선수 가족)

-성명서 발표: 허정훈(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중앙대학교 교수)

-질의응답 및 향후 계획

▶ 10:30 김포 FC 이사장 면담 및 항의 서한 전달

2023.03.14(화) 10시

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시망시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항의 서한 전달



김포FC는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서영길 대표는 유족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작년 4월 27일, 김포FC의 유소년 축구선수가 지도자 등의 반복적인 폭력과 언어폭력, 괴롭힘으로 인해 유서를 남기고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가해자들에게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구단은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유소년팀 지도자 전원과 재계약을 완료했다. 김포 FC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해 지도자가 선수들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김포FC 서영길 대표는 사건 발생 즉시, 지도자-선수 분리조치 및 가해자 처벌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본인 재량으로 징계를 내리기에는 법적 근거 등 부족함이 있다'라고 말하며 마치 남의 일인 양, 본인이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는 듯 책임을 회피하고만 있다. 심지어 스포츠윤리센터의 뒤늦은 징계 요구 결정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다. 서영길 대표는 고인과 유족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포FC 이상장인 김병수 김포시장 또한 이 사건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김포FC 구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린 선수가 사망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독히도 무책임한 구단의 지도자와 관리자들의 행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스포츠구단이자 공익 법인의 지위에 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가해 지도자를 직무 정지하고 학생선수들과 분리 후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는 허술한 조사와 장기간 묵인과 회피, 방관으로 일관한 구단의 행태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포함해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한 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서 공식 발표해야 한다.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던 철인 3종 선수 사망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스포츠계에 구조적인 폭력과 가혹 행위가 일상화되어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공론화되어 왔지만, 고질적인 악습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고 가해 지도자와 관련자들은 구속되어 중형을 받았으며 자격이 정지되고 영구 제명되었다. 국회를 비롯하여 정치권과 언론, 대한체육회 등을 비롯한 체육계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냈고, 시민사회도 진상규명과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다시, 오늘 우리는 축구를 좋아했던 유소년축구선수의 참담한 죽음 앞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 재차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오늘, 3월 14일은 사망한 유소년 축구선수의 생일이다.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김포FC 구단은 여전히 침묵으로 사건을 방관하고 회피하며, 도의적 책임도 저버린 언행으로 유족을 향한 2차, 3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토록 좋아하던 축구를 놓아버리게 만든 어린 선수의 죽음을 마주하며 제2의, 제3의 철인 3종 선수 사망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엄중히 판단한다.

우리는 어린 선수들이 폭력과 괴롭힘이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운동하고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 스포츠 지도현장에서 어린 학생선수들의 보호자가 되고 인권지킴이가 되어야 할 지도자가 가해자가 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대표자가 방관자이자 제2의 가해자가 되는 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 사건의 현실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성찰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는 김포FC 유소년 축구선수 사망 사건을 마주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포FC는 가해 지도자를 직무 정지하고 학생들과 분리 후 전수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하나, 김포FC 서영길 대표는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유족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김포FC 김병수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하나, 대한축구협회는 책임자를 징계하고 유소년 축구선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유소년 선수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프로축구 김포FC 유소년팀 선수가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화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14일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와 가해자로 지목된 축구팀 지도자들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사건 발생 11개월이 지났지만, 구단 측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지도자들과 재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스포츠윤리센터가 3개월 전 가해 지도자들의 징계 요구를 의결했음에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김포FC는 전수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대한축구협회에 대해서도 책임자를 징계하고 유소년 선수의 인권 침해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포FC 이사장인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하려 했으나 부재중이어서 시 관계자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선수인 10대 A군은 지난해 4월 27일 오전 2시께 김포시 마산동 기숙사 건물에서 투신하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숨진 A군이 SNS에 남긴 A4 용지 5장 분량의 유서에는 팀 지도자들의 언어폭력과 동료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이후 징계를 비롯한 구단의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A군 부모는 지난 6일 김포FC 고등팀과 중등팀을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제출했다.

A군의 부친은 "스포츠윤리센터가 관련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의결했음에도 김포FC 측은 직무 정지도 하지 않고 지도자 계약을 연장해 유족에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포FC 관계자는 "해당 지도자들에 대해 인사 조처를 하려면 명확한 행정적 근거가 필요한데 아직 구단에 공식적으로 공문이 오지 않았다"며 "공문을 받는 대로 그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4069200065?input=1195m



지난해 유소년팀 소속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FC가 사건 11개월여 만에 담당 감독과 코치진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서영길 김포FC 대표이사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어제 대표 직권으로 이들에 대해 직무 배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화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오늘 김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선수였던 10대 정모 군은 지난해 4월 온라인 메신저에 감독과 코치진 등의 언어폭력을 호소하는 글을 남긴 채 4층 기숙사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자료 출처: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4015 36126.html

주간 스포츠 소식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사업 수행기관 모집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2303140100110820013397&servicedate=20230314

안동시, 전국단위 체육대회 연이어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15 0002227009&cID=10810&pID=10800

문체부, 지정 스포츠클럽 통한 생활·전문체육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5078900007?input=1195m

2036 서울 올림픽 유치, 시설투자비 줄인다…대학 체육시설 활용

https://www.news1.kr/articles/4982167

원주시, 체육시설 30여곳 기능개선…역대 최대 총 110억원 투입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3023200062?input=1195m

용인시-박세리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https://www.mbn.co.kr/news/society/4911605

'2023 전국 유소년 생활체육 농구대회', 17~19일 제천서 개막···'허재·전태풍 사인회'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30315010004217

상주시체육회장 이번엔 '뒷거래 의혹' 폭로...본인은 사실무근 일축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31417040172731

원주시 차세대 생활·전문체육인 육성에 박차

http://www.kwnews.co.kr/page/view/2023031410042249908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